#73
Era 2552

Feb, Buddha

믿 음 지 혜 실 천	BUDDHANARA	FAITH WISDOM ACTION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 시 무자년 설날 법회 및 윷놀이
둘째주 일요일 11 시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 시 교리탐구 : 108 배 연구
넷째주 토요일 저녁 9시 부터 11시 "나를 찾아가는 마음 여행 참선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erday 10am. (매주 토요일 10 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마음은
간사하고 변덕스러운 것이니
허황한 것 좇아 헤매는 마음
잡아두기 진정코 어려운 일일세.
이러한 마음
잘 다스린다면
많은 행복 따르고
끝없는 기쁨의 원천되리.

The mind is fickle and flighty, it flies after fancies wherever it likes; it is difficult indeed to retrain. But it is a great good to control the mind; a mind self-controlled is a source of great joy.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8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설날 맞아 뜻있는 한해 설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마음 갖고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들이고
새로 사 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의 귀에 익은 윤극영 선생님의 설날 동시입니다. 설날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설날은 조상 숭배와 효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간 조상과 자손이 함께 하는 신성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평소의 이기적인 세속생활을 떠나서 조상을 생각하며 정신적인 유대감을 굳힐 수 있는 성스러운 시간이 바로 설날인 것입니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설날은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고향을 찾아 떠나고, 같은 날 아침 차례를 올리고, 또 새 옷을 즐겨 입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같은 한민족이라는 일체감을 가지게 됩니다.
설이란 새해의 첫머리란 뜻이고, 설날은 그 중에서도 첫날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설날을 '삼가다' 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뜻의 옛말인 '섧다'에서 그 어원을 찾습니다. 설날에 흰 떡국을 끓여 먹는 것은 고대의 태양숭배 신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새해를 맞게 되면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결같이 다가오는 새해엔 정말 뜻있고 보람 있게 살아보고자 경건하게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기의 세계라고 말입니다. 불교를 몰랐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불교인의 심성으로 한 해를 열어가야 합니다. 내 이웃과 내 가족의 축복 받는 삶이 곧 나의 행복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자라면 밝고 그리고 경건하게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 보겠노라는 다짐이 새 해 새 아침의 설날에만 되풀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이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설날이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이란 언제나 현재의 연장인 법입니다. 그 어느 한 순간도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불자는 매일 설날이어야만 하루하루가 설이라는 기분으로 자신의 정신과 몸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삿된 액운을 피해 가고 복을 불러들이는 주체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교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 되게 배워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으로 삼업을 청정케하고 그 청정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로보고 바로 알아서 궁극에는 의심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불자들은 설날을 맞아 돈을 많이 벌어 호의호식하게 살게 해달라거나 높은 벼슬을 얻어 권력을 휘두르는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사랑하며 스스로 자신이 나쁜 생각이나 행동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발원합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사는 날까지 주어진 의무를 게으르지 않고 실천할 때 원하는 권리도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진실 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의 씨앗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은 인연의 이치를 잘 깨달아 설날을 맞아 후회 없는 한해를 설계해 보시기 바라며 올 한해에도 소구소원이 원만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부처님께 不可能은 없다…마음이 화근

기치료(氣治療)로 소문난 한 재가 불자가 있다. 본인은 기로 병을 고친다고 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무당과 흡사하게 행동한다.

굿을 하라거나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자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그는 찾아온 이들의 선망영가들을 떠올리며 참회시키고 행동 습관을 바꾸게 한다. 모든 병은 억압된 감정이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생기는데, 그 뿌리를 바로 보게 하고 악습을 바꾸게 하니, 웬만한 병들은 쉽게 호전된다. 그가 감당하지 못하는 병도 많다. 말기 암환자가 찾아가면, "이 병은 다겁에 걸쳐 쌓인 업의 병이므로 당장 고치지 못합니다"라고 말한다. 피할 구멍은 만들어 놓고 상담하는 셈이다.

절 집에서는 화신 부처님에게 불가능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전해진다. 정해진 업보를 면하게 할 수 없는 것,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일체중생을 한꺼번에 제도할 수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이 삼불능(三不能)이 그럴듯하게 들린다. "역사상의 실존 인물인 석존"은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지 못했고, 업보로 고통 받는 중생을 모두 구제하지도 못했다.

인도 출신 교수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대승불교와 힌두교를 가르치는 닥터 야다브에게 저 삼불능에 대해서 물어 본 적이 있다. 한참 골똘히 생각한 그는, 한국불교가 대승불교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삼불능설이 전해지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대승불교에서의 부처님은 화신이든 법신이든, 법신인 동시에 화신이기 때문에, 불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덕전등록>에서 숭악원규(嵩岳元珪) 선사가 가르치는 것과 유사한 취지의 답변이었다. 삼불능은 화신불만을 모시는 소승의 경계라는 것이다.

여기의 내가 지금 말기 암에 걸려 있거나, 100 세가 넘어서 죽게 되어 있다고 치자. 어떤 원을 세워야 할까. 오래 오래 살기를 바랄까? 이렇게 묻고 나니, "해탈"의 문제가 떠오른다. 업의 인과응보로부터 해탈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업을 녹인다는 것은, 동쪽에서 뜨는 해를 서쪽에서 뜨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 세월이 갈수록 젊어지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움직임은 업이 되므로, 완전히 부동자세로 있으라는 말도 아니다. 행복하면 그대로 음미하면 된다. 고칠 수 있는 악습은 최선을 다해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여실히 관찰하는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진하게 삶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부처님에게 불가능이 없지만, 우리가 부처님이 어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업을 행하고, 그것을 불능으로 간주하기로 작정한다면,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힘과 관계없이 중생이 정하는 대로 불려 질 것이다. 몸에 맞는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고, 바른 생활 습관에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아서 사소한 병이라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지 않은 나의 과실을 밖으로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옷을 갈아입는다. 나의 생노병사는 우주 옷 색깔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다. 태풍, 지진, 해일이 엄청난 상처를 주고 지나가더라도, 우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돌아간다.

우주가 몸부림을 쳤다고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구름인 내가 죽을 때, 빗물이 되어 다른 생물을 적신다. 믿음만을 강조하는 타종교에서도, "절대자의 뜻"을 내세워서, 현실의 인연을 수용하라고 가르친다. "해탈 열반"이라고 불리든, "구원"이라고 불리든, 기도하고 수행하는 내가 신앙의 대상을 전능자로 만든다.

악업을 지우고, 선업을 쌓고, 기도하자. 그리고 나에게 닥치는 인연을 받아들이자. 보기도 좋고 편안하다. 취하고 버리기를 쉬지 않고 반복해 온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만남과 이별, 사랑과 변덕 등이 만들어내는 소리 없는 음악, 형상 없는 그림, 글씨 없는 시와 소설을,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처럼 감상할 수 있다.

죽음에 임박한 개종의 심각성

다(多)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심지어 부모 ·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종교를 갖게 되고 이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가능하면 가족 모두가 같은 종교를 신앙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일률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종교와 신앙이니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 차선(次善)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종교를 신앙할지라도 자신의 종교와 똑 같이 상대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아량만 갖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어느 날 갑자기 개종을 하고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이혼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던 사람도 "차마 이혼을 할 수는 없다"며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종교를 버리고 개종을 감수한다. 그러나 종교를 바꾸게 되면 그와 함께 그 동안 사귀어 온 인간관계도 상당 부분 잃게 되니 안타까운

일이다. 대학생 때 나와 함께 불교학생회원으로 활동했던 선후배와 동기들 중에 꽤 여러 명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우리는 예전과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개종을 한 이들은 함께 어울리는 것을 괜히 서먹해하고 그러다 아주 멀어진 경우가 많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종교 문제로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아마 부모님 임종을 앞두거나 상을 당했을 때일 것이다. 형제들이 "장례를 어떤 종교 의식에 따라 할 것인지?" 논의하다가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심하면 말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상을 치르고 난 뒤에 형제들끼리 왕래를 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이런 일은 너나 할 것 없이 겪어 왔고, 앞으로 누구든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임종을 앞둔 어른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것도 심각하다. 내 친구 중에도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한 자기 부친이 "임종 직전에 '하느님을 믿으시겠어요?'라고 말씀드리니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래서 목사님이 세례를 주셨다."면서 동생들에게 "아버님은 하느님 아들이 되어 돌아가셨으니, 아무 말 말고 기독교식으로 모시자."고 강요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 우리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상당히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런 형편이니, 태어난 민족적 · 종족적 배경 때문에 특정 종교를 의무적으로 신앙하게 되어 있는 곳에서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까.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 인용된 데이비드 커처의 『에드가르도 모르타라의 유괴』라는 책에 따르면, 19 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아기를 돌보던 보모가 '아기가 혹 세례를 못 받고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아기의 머리에 물을 끼얹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노라!'고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을 통해 유대교도인 부모들에게서 그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간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흔히 '희망의 21 세기'라면서 환호하며 맞이한 이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1 월 25 일 AP 통신의 쥬리아 자페이(JULIA ZAPPEI)기자가 쿠알라룸푸르에서 전해온 기사 <분쟁 끝에 무슬림으로 묻힌 말레이시아 불교도(Malaysian Buddhist Buried As Muslim After Dispute)>에 따르면, 스스로 불교도로 살아왔고 가족들도 대부분 불교도인 74 세의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 종교 재판을 거쳐 '무슬림'이라는 판정을 받고 '무슬림 장례 의식'을 거쳐 매장되었다고 한다. 다(多)-민족, 다-종족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중동지역의 강경 이슬람 국가와 달리 중국계와 인도계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종교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의무적으로 무슬림이 되는 토착 말레이계에 대한 우대 정책이 확대되면서 중국계와 인도계 시민들 중에서도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 재판까지 겪게 된 노인의 경우에도 이슬람으로 개종해서 압둘 라흐만이라는 무슬림 이름으로 개명까지 한 그의 맏아들이 "아버지가 지난 7 월 불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주장하며 불교식 장례를 거부하고 경찰에 제소하면서 문제가 크게 벌어졌다. 물론 맏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개종 사실을 부인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이슬람 율법을 다루는 샤리아(Shariah) 법정으로 넘어가 "무슬림 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판결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맏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이런 문제를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재판정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아들 중 한 명은 기자에게 "그들이 어떻게 내 아버님이 개종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은 임종 직전에 말 한 마디 하실 수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한다.

그에 따르면, 절에서 불교식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경찰이 시신을 압수해갔고 가족들은 법원에 제소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이 문제는 샤리아 법정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일반 법원의 관할이 아니다"는 이유로 가족의 제소를 기각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일반 법정과 종교 법정이 따로 운영되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임종 직전의 부모를 강제로 개종시키는 행위가 비일비재한 우리나라도 결코 무자비(無慈悲)하고 독선적인 점에서 결코 이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법적으로는 그곳보다 나을지 몰라도 오히려 실상은 그곳에서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흐름을 방치하고 있다가는,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뿐 아니라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크게 저해하고 커다란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혹, "임종 직전, 특히 중환자실에서의 개종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런 행위를 강요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법률 조항 신설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출가를 받아주십시오"라는 이교도 출신에게 부처님께서는 항상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권하시며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이 출가하여 계를 받으려면 4 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신다. 이것은 다(多) 종교 사회였던 당시 인디아 사회의 상황을 부처님께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일 것이다. 이 기회에 불교인들 또한 "혹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개종을 강요한 적은 없는지?" 돌아볼 일이다.

말레이시아는 2,700 만 인구 중 말레이계 60%, 중국계와 인도계가 나머지 40%를 차지하는 다-종족 국가이다. 이 나라는 비-무슬림들은 일반[세속]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만, 무슬림인 말레이계 시민은 이슬람 종교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이중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세속] 법원에서 개종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을 기피하고 종교 재판소로 넘기는 흐름이 지배적이고, 이것이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발생하게 한다.
지난 2005 년에도 에베레스트 원정 중 사망한 대원의 힌두교도 부인이 "내 남편은 개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슬림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던 적이 있다.

불교포커스 향산칼럼에서 발췌

외국인들, 해외 문서포교사업 "굿"

금강경독송회, 美학생 대상 '에세이 대회', 책자.DVD등도 배포…"한국정신 감명"

금강경독송회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해외문서포교사업이 외국인들에게 한국과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매우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경독송회가 지난 23 일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내 한인불자들의 모임인 금강경독송회(회장 박경원)는 지난 12 월 미국 28 개 고교.대학생을 대상으로 '충효예 에세이 대회'를 개최했다.

10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는 <충무공 이순신>, <세종대왕>, <한국문화 50 선>, <충.효.예> 총 4 권의 책자를 보급하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쓰도록 한 것. 책자는 영어, 불어, 독일어판으로 제작돼 배포됐다. 박경원 회장은 "그 결과 한국이란 나라의 우수한 정신을 알게 됐다"는 뜨거운 반응과 더불어 "예일대 등 42 곳의 대학과 아틀란틱 크리스티안 고교 등 19 개 고등학교에서 이를 수업교재로 채택하는 등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앞서 지난해 2 월 개최한 에세이대회에서는 미국 국방부 중역, 교수 등이 다수 참가해 '한국의 정신'에 대해 받은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책자를 보고 한국을 직접 보고 싶어 방문했다는 영국인 마트씨는 "대영박물관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 훔쳐온 물건이 대부분이다. 반면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보니 한국의 문화유산만으로 이 큰 박물관을 가득 메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해외에 한국불교와 한국문화를 전하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미국 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등 금강경독송회 해외분원이 있는 나라에서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책자 뿐 아니라 '한국 불교의 아름다움', '한국인의 정신' 등을 주제로 한 영상물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금강경독송회 서울법당 김영숙 씨는 "현재까지 32 만권의 책자와 1 만 3500 여편의 DVD 를 제작, 배포했다"며 "미국 등지에서

학교교재 채택을 하겠다며 책을 원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한국불교미술품을 소개한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불교신문 기사에서 발췌

좋은 언행은 청정 세상의 밑거름

우리는 삼키고 배설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들여오고 섞고 내보내야 한다. 음식과 공기가 그러하고, 살과 살, 부모와 자식이 그러하다. 삶은 저 부단한 교류 과정의 부산물일 뿐이다. 우리는 언뜻 삶이 먼저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교류가 없다면 지금의 우리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육체만 교류의 산물일까? 우리의 마음도 교류가 전제되지 않으면 육체의 교류도 없다. 만약 내 주변에 자연과 사람, 그리고 그것들과의 교류가 없다면, 나는 살아 있으되 죽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삶과 마찬가지로 행복도 주변과의 교류의 산물이다. 마음의 숨을 쉬지 않고는 즉 교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좋은 언행은 맑은 공기와 같다.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무심코 내뱉은 나의 말 한 마디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가 있다. 나의 몸짓, 표정, 눈길도 마찬가지이다. 빛과 소리가 반사 반향으로 되돌아오는 것과 같이, 나의 동작과 언어도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온다. 내가 상대의 기분을 1 할 상하게 했다면, 가중치가 붙은 반응은 나의 기분을 2 할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반사작용은 연속적으로 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반대로 나의 언행이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하면, 그 반향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연이어서 상대의 마음이 밝아질 것이다. 행복을 만드는 쪽으로 교류의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연말의 많은 송년회를 앞두고 "모임에 나갔을 때 피하고 싶은 인물 유형이 무엇이냐?"의 설문으로 조사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별 내용이 없는 말을 술주정하듯이 짓궂고 지겹게 되풀이하면서 깐죽대는 형, 뒤에서 남을 비방하는 형, 자화자찬형, 아랫사람은 무시하고 윗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아부하는 형, 재력을 과시하는 형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저 유형 가운데서 깐죽대거나 자화자찬하거나 재력을 과시하지 않기는 쉬울 것 같다. 아부하거나 직접적으로 남을 비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불교의 이상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골라내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이 듣기 싫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 어렵다. 모인 사람들의 잘잘못을 비판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어린 애기의 움직임을 무조건 귀엽게 보듯이, 그저 흥미롭고 재미있는 쪽으로만 생각하기가 무척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를 닦는 사람은 항상 밖의 것에 핑계를 찾지 않고, 자기로부터 행복을 여는 길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남을 불쾌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말과 행동은 물론 뜻까지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옹화상 발원문 가운데,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지옥, 아귀, 축생의 고통을 면하고, 내 모양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다. "내 이름"과 "내 모습"을 "내 말"과 "내 몸짓"으로 바꾸어도 좋으리라. 나옹화상은 만나는 사람마다 극락과 해탈의 세계를 선사하려는 큰 원을 세우지만, 우리는 최소한 접하는 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는 있으리라.
등산로에서 아버지와 중학교 1 학년 정도의 아들을 만났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땅을 보고 지나갔다. 나는 보통 가볍게 말을 걸지만, 아버지가 대면을 피하는 것 같아서 편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아들이 "안녕하세요"라며 머리를 꾸벅하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앞서 지나간 아버지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등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들에게 인사를 담아서 전하는 중이었다. 아들로 하여금 밝고 정겨운 세상을 만들도록 교육을 시키는 중이었다. 내 속에서는 저절로 축원이 떠올랐다. "저런 아이가 커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언으로도 상대에게 공경을 표할 수 있다. 단지 두 손을 가위자로 모아서 아랫배를 가리는 시늉만 해 보라. 아름다운 경례의 조각을 만드는 예술가가 될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삶

가을 단풍이 산하를 뒤덮어 화장세계를 연출해 내고 있습니다. 산에 나무 한 두 그루만의 단풍으로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주기 어렵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각자의 욕심을 버리고 조화롭게 같은 시기에 모두 단풍으로 물들어 주었기 때문에 봄에 피는 꽃에 뒤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움을 연출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보면 높은 산에 오를수록 작은 키의 나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욕심을 부려 높은 산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는 큰 키의 나무가 서 있다면 비바람 때문만이 아니라 영양분이 부족하여 종국에는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은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설법해 주며 가르침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 간다는 것은 쉬운 듯 하지만 욕심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화두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매일 매일 찰나 찰나의 순간을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허덕일수록 자기자신을 타락시켜 갑니다. 법구경에도 “수행의 시작은 욕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 되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자면 먼저 만족한 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욕심을 버려야만 하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안자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다” 라고 만족한 인생 살이를 이야기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집착이 없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집착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즐거워 진다 했고 이웃들에게도 베푸는 마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지금은 입적하신 강석주 큰스님 께서는 평생을 부자가 되는 부적이라 하시면서 칠보사를 찾는 신도님들에게 “오유지족” 즉 “나는 만족한 줄을 안다” 라는 뜻을 가진 글을 참으로 많이도 써 주셨습니다.
글씨를 써 줄 때마다 큰스님은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행복이 보이고,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행복한 이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 찾기 수행을 합시다.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

입 춘 기 도

이십사 절기 첫 번째 새봄 맞는 날
엄동설한 추운 겨울 잘도 견디어
새봄 새 마음으로 단장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삼재팔난 모든 마장 호법선신 물리치어
금년 무자년에는 우리집안, 우리이웃 좋은 일만 있어라.

개문만복래요, 입춘대길이라.
노인들은 안심입명 자손들은 창성하고
가는 곳마다 좋은 인연 만나옵고
언제라도 착한 마음 자비 보시 실천하는 법왕자요,

불자되어
부처님 전 두 손 모아 빌고 빌며 절하옵니다.

법회소식 NEWS

- 무자년 쥐띠해 가 밝았습니다. 2008 년에도 2007 년과 마찬가지로 주위 분들이 부처님법에 의지해서 인생을 보람되게 살수 있도록 불자님들 가까이에 계신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에도 전법 많이 합시다.
- 양력으로 **2** 월 **7** 일은 한국 전통 명절인 음력 설날 입니다. 불국사에서는 **2** 월 첫째주 **(2** 월 **3** 일**)** 일요일에 부처님전에 떡국을 올리고 세배를 올리는 세알 법회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잊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주시는 새배돈을 잊지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심 공양 후에는 윷놀이도 있습니다.
- 2 째주에 있었던 성도재일 철야 정진과 4 째주 토요일 저녁에 있는 "나를 찾아가는 마음 여행" 참선 법회에는 많은 신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참선 정신 법회를 마쳤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3** 째주에 있는 교리탐구 시간에는 **"108** 배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법회가 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DVD** 영상물 시청과 더불어 몸에 무리가 주지않으면서 바른 자세로 절하는 법과 수행에 중점을 둔 법회 입니다.
- 매달 **4** 째주 토요일 저녁 **9** 시부터 **11** 시까지는 **"**나를 찾아가는 마음 여행 참선 법회**"**가 있습니다. 법회 방식은 참선, 요가, 경전낭독이 있습니다. **11** 시에 참선법회가 끝난후에 시간이 있으신 신도님들과 간단히 경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참선 정진 법회는 일요일에 일을 하므로 일요일 정기 법회에 참석 못하시는 신도님들을 위한 법회 임과 동시에 참선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을 위해 열리는 법회 입니다.
  법회는 저녁 **9** 시에 시작하므로 적어도 법회 시작전 **10** 분전에는 도착해 주십시오. 복장은 참선하기 편한 복장으로 허리가 졸리거나 몸에 꼭 끼는 복장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참선 법회 끝날 때까지 참석하신 모든 신도님들은 **"**묵언**"**해 주십시오.
  참선 법회 이후에 사찰에서 주무실 신도님들은 간단한 **"**세면도구**"** 및 **"**침낭**"**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가 충분치 않은 관계로 노약자를 제외한 신도님들은 법당에서 주무셔야 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에서 주무시는 신도님들은 일요일인 다음날에 가까운 공원이나 미술관 또는 동물원에 소풍을 갑니다.
  토요일 참선 법회는 일요일 법회 대신한 것이므로 **4** 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는 없습니다.
- 현재 불국사에서는 연등 만들기 위한 가장 처음 시작 단계인 **"**연잎 비비기**"** 자원 봉사에는 감로수 김미정, 김숙향 신도님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신도님께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3** 째주 일요 법회 후에 연등 속지 붙이는 작업은 신도님 모두들 함께 하게 됩니다. 신도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바랍니다.

1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31 번 반야사 중창불사 발원, 32 번 반야사 중창불사 발원, 33 번 반야사 중창불사 발원, 34 번 원욱 스님, 35 번 유곡 스님, 36 번 진양후인 정원도 영가, 163 번 임인생 김경수, 164 번 정미생 차희선, 168 번 병인생 이재원, 201 번 경신생 조한준, 321 번 갑진생 차재관, 322 번 병오생 전동숙, 441 번 경신생 임대인, 449 번 임자생 이경복, 450 번 갑인생 장선희, 451 번 정축생 이지수.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 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회장님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